

# 나주시, 향교랑 놀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내달 3일 개최

## 무병장수 건강 기원 장명루 만들기 체험 진행

나주시는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인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 '향교랑 놀자, 장명루 만들기' 체험을 오는 12월 3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굽은 소나무학교는 당초 11월 프로그램으로 계획했던 장명루 만들기 체험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 다음 달로 미뤄지면서 12월 행사와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마지막 프로그램이 될 12월 향교랑 놀자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소원팔찌 장명루 만들기'를 주제로 오방색실로 장명루를 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명루'(長命縵)는 오색실로 만든 매듭팔찌로 단오날에 잡귀와 병화를 물리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어린 아이들의 팔뚝에 동여매주는 풍습이 전해져오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는 사전신청 없이도 12월 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주향교를 방문하면 된다.

장명루 만들기 외에도 나주향교에서는 크리스마스 포토존에서 사진 찍기, 전통놀이, 금성별곡 목판서화, 죽방울 만들기, 이야기할머니, 향교 해설 등 다양한 체험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다. 보물찾기와 딱지치기, 투호던지기, 고리던지기 미니대회 등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조준 굽은소나무학교 센터장은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으로 걱정이 많은 시기에 장명루를 만들어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다가올 새해 소원을 빌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나주향교 오인선 전교사는 "연말을 앞두고 나주향교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나주향교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철 기자

## 영광군, 전국 승마대회서 다수 입상

### 영광승마장 유소년 승마단, 4개 부문 수상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영광군을 대표해 전국 승마대회에 참가한 영광승마장 유소년 승마단이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5일간 전라북도 익산시 공공승마장에서 개최된 2022년 익산시 전국 승마대회에서 영광홍농중학교 2학년 이시우, 영광여자중학교 1학년 박의진, 해룡중학교 1학년 김재훈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영광홍농중학교 이시우 학생은 장애물(30cm)와 장애물(허들) 부문에서 각각 2위, 3위에 입상했으며, ▲영광여자중학교 박의진 학생은 장애물(50cm) 1위 ▲해룡중학교 김재훈 학생은 KHIS-7부문에서 3위에 입상했다.

이번 대회는 영광승마장 실내승마장 조성에 따라 대회 준비 여건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마단

원들의 갖은 노력으로 이룬 값진 결과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오는 12월 실내승마장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매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승마대회에 영광군을 대표하는 유소년 승마단원들이 참가해 활약하는 모습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여건 마련과, 수준에 맞는 마필구입 등 승마단원들의 꿈을 현실화하고, 영광군의 위상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 유소년 승마단은 지난 2017년 5월 최초 창단해 현재는 총 8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에 4명의 승마단원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정률 기자

## 담양, 중간간부 공무원 기획실무 워크숍 진행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민선8기 군정 방향에 맞춰 팀장급 공무원들의 정책기획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담양군 6급 팀장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1박2일)까지 신안군 자은도 씨원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민선8기 군정 추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실행 계획 작성을 위해 ▲정책이슈 New Waves ▲공약사업 분석과 핵심사업 이해 ▲전략 수립 및 과제도출 ▲사업계획서 작성/실습 순으로 이뤄졌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정 기본방향 및 국정과제와 2023년 부처별 주요 신규사업을 바탕으로 우리군 공약 및 핵심과제를 연계한 정책과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인 정책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6급 팀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으로, 팀장급 공무원들이 향후 군정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부하 직원들의 역량을 성공적으로 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성공적인 군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정책기획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진성 기자



구북규 화순군수가 최근 능주면 동현에서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소통했다. 이번 좌담회는 구미라 능주면장의 방문 요청에 의해 열렸다. 이날 달 열린 능주면민의 날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구 군수에 대한 주민들의 아쉬움에 따른 것이다. /화순군 제공

## 구북규 화순군수, '사랑방 좌담회' 열고 소통

구북규 화순군수가 최근 능주면 동현에서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소통했다.

이번 좌담회는 구미라 능주면장의 방문 요청에 의해 열렸다. 이날 달 열린 능주면민의 날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구 군수에 대한 주민들의 아쉬움에 따른 것이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서 군정 전반에

관해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며 주민들의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구 군수는 좌담회에서 민선 8기 군정운영방향과 군정철학을 공유하고 '능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 능주면의 발전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구 군수는 주민들의 질문, 고충, 건의사항 등을 듣고 답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항상 말씀드

리지만 군수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들을 하늘같이 섬기는 자리다"며 "앞으로도 항상 주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서는 주민들을 대표해 유영호 능주면 번영회장이 능주면에 대한 각별한 애정에 감사패를 구북규 군수에게 전달했다. /남호경 기자

##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매출 30억

### 올해 6월 개장,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

올해 6월 개장한 광주광역시 북구 옹동동 장성로컬푸드직매장이 11월 들어 총 매출 30억 원을 달성했다.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은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장성군의 신선한 먹거리를 전문적으로 판매한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큰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회원수와 매출이 상승세를 그리는 중이다.

부지면적 5천257㎡에 2층 건물로, 1층에는 로컬푸드 매장과 정육, 수산, 김치, 샐러드 전문점 등이 입점해 있다.

2층에는 베이킹 시설과 교육장을 구비해 각종 소비자 교육과 쿠킹 클래스가 열린다.

최근에는 아이들 대상 '케이크 만들기'가 연일 매진사례를 기록했다. 장성 농산물로 재료를 준비해 로컬푸드 인식 개선 효과도 거뒀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재)장성먹거리통합센터가 전담팀을 구성해 출하농가 조직화 교육을 추진하는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모두가 힘을 모아 단기간에 매출 30억 원이 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지역농가 소득 증대에 꾸준히 기여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광중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 집나가면 '가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9년 곡성군 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